■ 민주당 전당대회 충돌 우려

경선룰 다툼에 축제 아닌 분열의 장 될라

박주선 "2대8 경선안 혁통에 흡수당하는 꼴"반발

일부선 "손대표 밀실야합 분개" 전대 무산론도 제기

문재인 "민주당 혁신 의지없으면 통합 포기" 압박

야권 통합을 둘러싸고 민주당이 심각한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다.

통합 정당에서의 지도부 선출 방식을 둘러싸고 민주당 내부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가 하면 시민통합당과의 협상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통합 협상 결과는 오는 11일 개최되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의 통합 결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어서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6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통합협상단 당헌·당규 분과 회의 결과, 통합 정당 지도부 선출 방식과 관련, '대의원(20%)+당원·시민(80%)'를 골자로 하는 경선룰이 다수 의견으로 제시됐다.

이 안은 지도부 경선에 참여할 대의원에 민주당과 시민통합당의 대의원을 비슷한 비율로 배정하는 것과, 민주당의 당비당원 12만명은 선거인단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선거인단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다수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박지원 전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반발 기류도 만만치 않다.

다수 안이 사실상 '당원주권론'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은 물론 손학규 대표와 혁신과 통합과의 밀실야합에 따른 결과라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박주선 최고위원은 "지도부가 제시하고 있는 2 : 8 경선안은 통합이 아니라 민주당이 시민통합당에 흡수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박 전 원내대표도 이날 공개서한을 통해 "민주당원들이 민주당의 정체성과 60년 전통을 지키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이라며 "손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민주당원의 이런 뜻을 외면하고 어떠한 설명도 없이 (통합을) 밀어붙였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각에서는 민주당 지도부가 '2 : 8 경선안'을 밀어부칠 경우, 오는 11일 전당대회의 정상 개최에 심각한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지도부의 통합 전당대회 추진에 반발, 서명에 나섰던 5400여명의 대의원들이 11일 전당대회에 집단으로 불참, 전당대회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전당대회가 개최된다 해도 통합 의결 투표를 주장하면서 몸싸움과 고성이 오가는 등 축제로 치러져야 할 전당대회가 분열과 갈등의 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지도부의 통합 추진 방향에 반대하는 모 원외위원장은 "어제 문성근 혁신과 통합 공동대표가 '손학규 대표와 2 : 8 경선안에 합의했었다'고 밝힌 것과 관련, 많은 대의원들이 '밀실야합'이라고 분개하고 있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정상적으로 전당대회가 개최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과 통합이 주축세력인 시민통합당도 민주당의 '2 : 8 경선안'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의 당비 당원 12만명을 그대로 선거인단에 포함시키는 부분이 불공정 경쟁일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독자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대 소집 요구서를 제출한 한 원외위원장은 "당원들이 지도부의 밀실야합에 분개하고 있다"며 "지금 상황이라면 전대에서 표결을 통해 대의원의 뜻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혁신과 통합' 상임대표인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민주당 쪽에서 혁신의 의지가 없이 통합만 하려는 것으로 최종 확인된다면 통합을 포기하겠다"고 밝히며 민주당 압박에 나섰다. 문 이사장이 이렇게 강경한 태도를 밝힘에 따라, 민주당과 '혁신과 통합'의 통합 협상은 긴장감이 높아질 전망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경선룰 2대8안 유력… 총선 공천 국민경선제 가닥"

〈대의원 20%+국민경선 80%〉

통합협상위 당헌·당규분과 우윤근 위원장

"통합은 합의를 전제로 해야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 결코 투표나 세 대결을 통해 통합 안이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

민주당 야권통합협상위원회 당헌·당규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윤근 의원은 6일 광주일보와 인터뷰에서 통합 협상의 최대 난제로 꼽히고 있는 지도부 선출 방식과 관련, "일단 '대의원 20%+국민경선 80%(민주당 진성당원 12만명 자동 참여)' 다수안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우 의원은 "민주당 개혁특위가 제시한 '전당원 경선제'를 주장하는 위원들도 다수 있어 합의점을

도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민주당 내부에서 우선 원만한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전당원 경선제와 2 : 8 경선제를 놓고 위원들이 대립하고 있는 만큼 오늘 한 차례 당헌·당규 분과위 회의를 진행한 뒤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두 가지 안을 7일 열리는 야권통합협상위원 전체 회의에 제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야권통합 협상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통합 정당 지도부 경선 방법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하지만 진정한 통합을 이루려면 합의가 전제돼야 하며 투표나 세 대결은 분열과 갈등만 낳게 된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우 의원은 또,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오는 11일 전당대회 이후 구성되는 통합 수임기구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통합 정당의 내년 총선 공천 방식과 관련, 우 의원은 "일단 완전국민경선제를 시행한다는 것이 원칙으로 가닥이 잡혀있다"며 "여기에 야권 연대 등을 고려한 전략공천과 배심원제를 도입하자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

"손대표 2대8안은 밀실야합… 사실상 호남 죽이기"

통합협상위 실무 협상단 위원 염동연 전 의원

민주당 염동연 전 의원이 통합정당 지도부 선출방식을 놓고 당 안팎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 "합의 없인 통합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당 지도부의 경선 방식에 대해 반박했다.

민주당 야권통합협상위원회 소속으로 시민통합당과의 실무 협상을 맡고 있는 염 전 의원은 6일 광주일보와 인터뷰에서 "손학규 대표가 혁신과 통합 측과 밀실 야합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신뢰 회복과 소통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염 전 의원은 이어 "지도부 선출방식과 관련해 당내 협상안이 나와 있

지 않은데, 통합협상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협상이) 이뤄진 게 아무것도 없다"며 "(협상안) 단일안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통합협상에 참여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염 전 의원은 특히 "손 대표가 물밑에서 혁통 측과 합의한 뒤 무조건 따라오라고 하는 것은 밖으론 밀실야합, 안으론 독재"라며 "이는 내면적으로 '호남 죽이기'며 당을 다시 파국으로 몰고 가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염 전 의원은 또 "손 대표 측과 혁신과 통합 측이 지도부 경선방식(대의원 20%, 당원·국민 80%)을 놓고 물밑 협상한 것은 구태 정치"라며 "통합 주체는 민주당이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절차를 지키는 통합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 전 의원은 특히, 합의를 전제로 하는 협상안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오는 11일로 예정된 임시 전당대회도 정상적으로 개최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염 전 의원은 "서로 감정적으로 대치 중인데, 11일까지 합의안이 나오겠느냐"면서 "임시 전대 성원이 안 될 수도 있다. 분명 대의원들도 지금의 통합협상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행기자 golee@

FTA 청원 초안 완성… 판사들 회람

사법부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 연구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 현직 부장판사가 청원문 초안을 완성하고 뜻을 같이 한 판사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

6일 법원에 따르면 김하늘(43·사법연수원 22기)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5일 TF 구성에 동조 의사를 표명한 판사 174명에게 이메일로 청원문 초안을 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대법원장님께 드리는 건의문'이란 제목 아래 '우리 사법주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한미 FTA에 대해 재협상 연구를 진행할 TF를 구성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으며, 당초 계획과 달리 청원문이 아닌 건의 형식으로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동의한다는 뜻을 밝힌 한 판사는 "애초 청원문 형식을 취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대법원에 청원을 낼 경우 외교통상부 등으로 소관 이전될 사안이라는 지적 등을 고려해 건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행정처 산하에 TF를 둬야 한다는 주장도 변함없지만, 연구팀만 설치될 수 있다면 반드시 행정처 산하 조직만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쪽으로 동료 법관들과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김영진 의원 출판기념회 민주당 김영진 국회의원(서구 을)이 6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강운태 광주시장과 민주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 박주선 최고위원, 장상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지지자 등 3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저서 '역경 속에 핀 꿈'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호남을 대표하는 여행 브랜드
트렌블 조이여행사 JOYTRAVEL
대표전화.(062)234-322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5가 151-1번지 FAX (062)234-3141

대표이사 최 금 환
http : www.joytour.kr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

선박
목포-제주도 ₩139,000원~
장흥-제주도 ₩159,000원~
불포함:기사&가이드팁(₩10,000원), 수송비(광주-목포&장흥)

항공
광주-제주도 ₩259,000원~
불포함:기사&가이드팁(₩10,000원)
후원: 아트랜드, 퍼시픽랜드

카멜리아로 떠나는 겨울온천 즐기기!!
구중산 빌라형통나무콘도
4일 ₩349,000 출발일 12/18,21,25 불포함: 기사&가이드팁(₩20,000), 광주-부산 수송
일본 전통료칸 스지유 마을 온천 즐기기
4일 ₩489,000 출발일 12/21,1/3,5 불포함: 기사&가이드팁(₩20,000), 광주-부산 수송
나가사키, 유럽풍의 하우스템보스
4일 ₩549,000 출발일 12/21,1/3,5,10 불포함: 기사&가이드팁(₩20,000), 광주-부산 수송
품격 항공으로 떠나는 오사카 교토, 와카야마
4일 ₩969,000 출발일 12/26 불포함: 광주-부산 수송

무안-세부 전세기 (12/29~1/22 총8회)
실속
세부 비리조트 4일 (목요일출발) ₩899,000~
5일 (일요일출발) ₩949,000~
세부시티 메리엇호텔 4일 (목요일출발) ₩929,000~
5일 (일요일출발) ₩949,000~
품격
세부 모벤픽리조트 4일 (목요일출발) ₩1,249,000~
5일 (일요일출발) ₩1,349,000~
세부 샹그릴라리조트 4일 (목요일출발) ₩1,399,000~
5일 (일요일출발) ₩1,549,000~
불포함: 유류할증료, 자유시간시 중식 또는 석식,선택경비,기사&가이드 팁

세계 자연문화 유산이 빛나는 앙코르와 캄보디아!!
무안-씨엠립 전세기 (12/24~ 2/28 총 20회)
관광
씨엠립 3박4일 [준특급.토요일출발] ₩799,000~
씨엠립 3박5일 [준특급.화요일출발] ₩799,000~
불포함:유류세(137,000원),캄보디아비자($20),선택관광,가이드및기사팁($30)
골프
씨엠립 3박4일 [준특급.토요일출발] ₩1,160,000~
씨엠립 3박5일 [준특급.화요일출발] ₩1,160,000~
불포함:유류세(137,000원),캄보디아비자($20),선택관광,가이드및기사팁($30)
골프시-클럽증식3회,캐디팁(18홀-5$),공동경비($10)
활기찬 표정과 열정이 넘치는 곳!!
무안-마카오・홍콩 전세기 (12/26~1/23 총 9회)
관광
4일 홍콩/마카오 (금요일출발) ₩849,000~
4일 홍콩/마카오/심천 (금요일출발) ₩899,000~
5일 홍콩/마카오/심천 (월요일출발) ₩849,000~
5일 홍콩/마카오/심천/주해(온천)(월요일출발) ₩899,000~
불포함: 유류할증료, 선택관광, 개인비자
골프
4일 주해 골프 (54H) (금요일출발) ₩1,249,000~
5일 주해 골프 (54H) (월요일출발) ₩1,259,000~
불포함: 유류할증료, 케디팁, 전통카 1인 사용시 비용, 개인비자, 가이드/기사팁, 클럽증식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철저히 준수합니다.
등록번호 : 제동다 2003-1호
◆2억원 영업보증보험 가입 / 여행공제 가입업체
◆교통편 : 항공 및 선박, 전용버스 / 전지역
◆공통조건: 여행 경비 1인 기준, 여행자보험 가입(해외상품: 1억원, 국내상품 5천만원), 관광진흥개발기금, 공항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경비없음 (단, 기사/가이드 봉사료, 선택관광 각국 비자비용 별도) ◆ 최소 출발인원: 상품에 따라 다름
◆상기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예약시 계약서(취소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트래블